

장미대선 레이스 시작 개헌 동시투표에 촉각

5.18 정신 헌법 수록 공감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은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는 개헌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극심한 국민 분열을 겪은 만큼, 권력 구조 재편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 정치의 새 지형을 만들 개헌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개헌 과정에 광주·전남의 해묵은 현안인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내란 종식 우선'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개헌 논란은 조기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개헌 국민투표 가능할까?—개헌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재야 인사 등을 통해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 논의에 불을 당겼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권분립의 기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쟁점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혔기 때문이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말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면서도 “국회의장이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개헌 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국적 갈등의 소리에 따라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가 있

현재, 윤석열 파면 4일자 호외 발행
시·도민 “이런 세상 꿈꿔요” ▶2~5면
尹 파면 관련기사 ▶2~9, 16·17면

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개헌은 앞서 국민의힘과 정치원으로 모임인 헌정회 등이 제안해 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이 있었던 이날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또 조기 대선 일정이 촉박해 '60일 패스트 개헌'을 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하다.

◆6월 3일 장미 조기대선 유력=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대선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오는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특히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을 수 있어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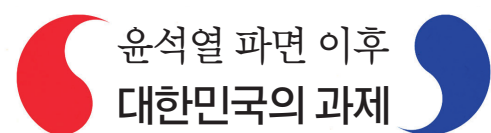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틀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파면의 기쁨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일 헌재의 주문 낭독 이후 서울 중
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있다. /서울=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법치 존중이 민주주의다”



윤석열 파면 이후 대한민국의 과제

〈상〉 국민 통합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양 극단의 갈등을 겪으며,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다. ‘법의 가치와 판단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만이 모든 혼란과 갈등을 불식시키고,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광우일보는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경제 회복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과제들을 집중 점검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째 계속된 혼돈에 마침표를 찍는 판단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내고, 탄핵을 이끌어 낸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재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로 나뉘어 분열을 되풀이 했던 한국 사회에 '기준
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탄핵 반대 진영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와 중국 공산당 색출을 위한 '계몽령'이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 모두를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 사유도 충분'하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사회가 분열을

제업과 탄핵 과정 혼란·갈등 극심

尹, 현재 판결에 승복 메시지 내야

통합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수용하고 따르는지 여부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구축해 놓은 법 체계의 최고 판단 기구인 헌재마저 불신한다면 분열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진영은 현재의 선고 이후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국민 저항권’ 등을 내세우며 헌대 판결에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더욱 강경해진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파면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직 마저 대국민 사과나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극심한 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하지 못하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이 대선 승리를 위해 당리당략만 앞세우며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자극할 경우 국론분열과 국민들의 혼란을 또 다시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엄과 탄핵으로 불거진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 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판결을 '특정 진영의 생각을 대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민족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받아 들여야 할 순간이다. 따라서 야를 떠난 정권권과 사회 지도층이 이제는 이념, 세대, 지역 간 앙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변호사 영입인사

저희 **【법무법인 형제】**는 이번에 광주 고등법원을 퇴임하신 이창한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와 지역민의ために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3.

법무법인 형제

대표변호사 기 세 윤, 최 인 규

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98빌7-23 서초빌딩 1층~4층
 대표전화 : 062-233-8500
 업무개시일 : 2025. 3. 10.
 사무소 초창일 : 2025. 4. 7.(월) 11:00 ~ 19:00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2025. 2. 24에 33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형제】**의 대표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 전남 순천 출생 / 순천고 / 서울대법과대학졸업
- 사법연수원 18기 수료(사법시험 28회)
- 제주지방법원장
- 광주고법·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광주지법 가정지원장,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 광주고법·광주지법 부장판사
- 대법원재판연구관
- 광주지법·순천지법·목포지법 판사
- 제주·전남 선거관리위원장
- 미국 U.C. Berkeley 연수(Visiting Scholar)

법무법인 형제 대표변호사 이 창 한 올림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인문학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선크림

